

휴켄스, 과학영재 지원 30억원 기탁

휴켄스는 과학영재를 지원하기 위해 정산장학재단에 장학기금 30억원을 기탁했다.

정산장학재단은 태광실업 박연차 전 회장이 1999년 경상남도의 과학영재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했으며, 10년간 700여명의 이공계 학생들에게 13억3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박연차 전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정산장학재단은 휴켄스의 기탁으로 100억원 이상의 장학기금을 보유하게 됐으며, 경상남도도 한정됐던 장학금 수혜대상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규원 대표는 “인재 육성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됐으면 한다”며 “정산장학재단 기탁을 계기로 사회공헌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태광실업 계열사인 휴켄스는 여수산업단지에서 정밀화학 소재를 생산하고 있으며 매출은 연간 4500억원 규모에 달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2/01>